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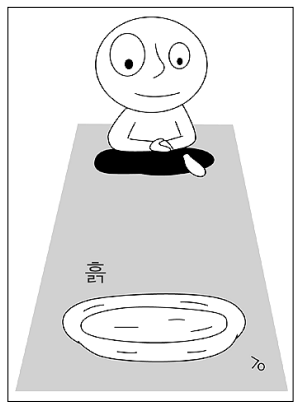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18>

까시나 수행

불교의 수행 체계는 크게 사 마타와 위빠사나로 분류 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밝혔습니다. 이 중 사마타 수행은 정학을 말하는 것으로 번뇌와 망상을 그치게 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맑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므로 지(止)라 하고 위빠사나 수행은 혜학을 말하는 것으로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낳게 하므로 관(觀)이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마타 수행은 수행의 주제가 오로지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일에만 두고 있는 위빠사나와는 달리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점도 역시 밝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기질이

주변에 언제나 가득하여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까시나의 종류를 보면 더욱 이해가 됩니다. 논서에서는 열 가지 종류의 까시나 수행을 말하고 있는데 흙을 가지고 하는 까시나, 물을 가지고 하는 까시나를 비롯해 불, 바람,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 빛, 한정된 허공 등을 가지고 하는 까시나가 그것입니다. 이들 수행법들은 한마디로 상념을 지속적으로 떠올려 그 영상을 확대시키고 명료하게 하여 삼매를 얻고 그 삼매로써 평온과 기쁨을 얻는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같은 수행이 나오게 된 연유는 과거 부처님 당시에 덕 높은 수행자들이 자연적인 물질의 형상을 보고서 마음 가운데 삼매가 일어 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땅의 까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마타 수행을 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경전에 언급된 다양한 방법의 사마타 수행들이 우리 한국불교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 지면에 경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행법을 소개하는 가운데 까시나 수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 불교 속에 그와 같은 수행법이 있었느냐는 질문과 함께 좀 자세한 내용을 알려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미 밝혔듯 까시나란 편만(偏滿), 즉 주변에 가득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 주변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수행 도구를 가리킵니다. 까시나를 이렇게 편만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유는 이것들은 우리들

주변에 가득한 물질 통해 삼매에 들어

사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많지만, 우선 수행자는 아주 깨끗하고 맑고 빛깔 좋은 흙을 구한 다음 그 흙을 잘 반죽해서 직경 약 두 뼘 정도의 원반을 만듭니다. 그리고 잘 말린 원반을 눈에 정확히 보이도록 놓고 그 앞 수행에 들어갑니다.

앞의 도구를 지시 하고 때로는 눈을 뜨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감기도 하면서 집중적으로 마음에 까시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마치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잃지 않고 떠올리는 것처럼 마음에 상념을 짓는데 이를 잘 되게 하기 위해 "땅 땅 땅" 하고 불러도 됩니다. 수행자가 이렇게 하여 마음이 집중 되면 앞의 까시나의 모습은 삼매로 연결되어 좀더 높은 선정의 상태로 발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행자는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고 희열과 만족을 얻어 지혜를 이루는 토대를 갖습니다. ■유마선원장

동화사 담선대법회

축서사 선원장 무어 스님 '공안참구와 공안공부'

의심없는 화두는 죽은 화두

"의심없는 화두는 죽은 화두다."

무어 스님(봉화 축서사 선원장)은 조주 스님의 '무(無)자' 화두도, 운문 스님의 '마른 똥 막대기(乾屎橛)' 공안도 의심을 일으키는 '의문거'라고 말했다. 때문에 의심은 화두의 길잡이이고, 생명이 된다고 강조했다.

10월 16일 대구 동화사 통일 대불전에서 '간화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7차 담선법회. 논주로 나선 무

어 스님은 간화선의 수행방법인 '공안참구와 공안공부'에 대해 논했다. 스님은 이 자리에서 "의심을 일으키는 이유는 깨치기 위해서다. 나와 화두, 세계가 온통 의심덩어리가 되어야만, 궁극에는 그 화두의 의심을 타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년전부터 제자불자들을 대상으로 참선지도를 해오고 있는 무어 스님은 철저한 체원에서 우려나 화두공부법의 '그리'를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 요지.

발심이 화두고 화두가 발심

공안 타파는 참선 수행자의 뜻과 정성에 달렸다. 마음공부에 절절해야 화두공부가 깊어진다는 말이다. 무어 스님은 "발심이 화두고 화두가 발심"이라고 말했다. 화두가 잘 안 된다. 참선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발심이 안 됐기 때문이다. 진정한 발심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님은 의심을 간절하게 일으켜야 화두공부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며칠 굶은 사람이 밥을 생각하듯,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듯, 절순 노파가 전장터에

나간 외아들을 생각하듯 의심을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래야만 화두참구가 절실해진다. 자나 깨나 늘 이마에 간절할 '절(切)'자를 써 붙이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고집스럽게 화두를 붙들어야 한다는 말도 이어졌다. 쉬 없이 간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쓰러질 때도, 또 쓰러지면서도 화두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예 목숨을 때 놓고 하라'는 옛 선사들의 어록까지 인용했다.

스님은 또 "등정 일어난 상태에서 가장 일하기 쉽다"며 화두참구와 일을 병행할 수 있

다고 밝혔다. 진지하게 공부를 하면서 얼마든지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사로 나선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도 논평에서 "개인 발심을 돈독히 하고 용맹심을 전제로 해야 참선자의 정진자세가 투철해진다"고 무어 스님의 의견에 공감했다.

신심(信心)은 '신심(信深)'이 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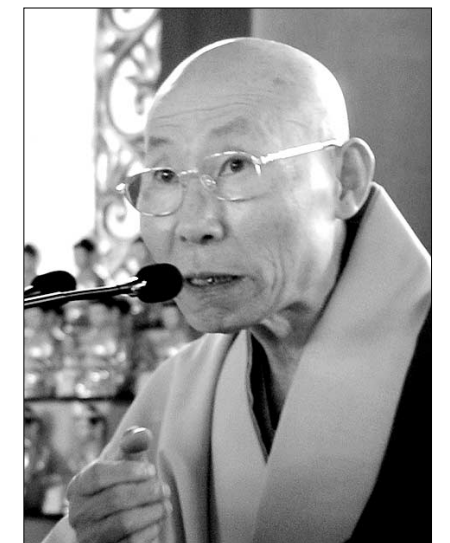
도 닦는 수행자는 '깊은 믿음'이 필요하다. 신심이 부처의 눈을 뜨게 하고, 불성(佛性)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스님은 '나도 불성이 있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화두공부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깊은 믿음'이 신앙(信仰)의 원동력이 된다고 밝혔다. 깊은 믿음은 믿음의 뿌리(信根)를 튼튼히 하고, 믿음의 힘(信力)을 키우는 기초가 된다는 의미다. 결국 신앙은 이런 신근과 신력이 튼튼해져야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스님은 이러한 믿음을 나무의 뿌리에 비유했다. 나무의 뿌리가 깊고 튼튼할수록 흔들림 없이 크게 자랄 수 있듯이 신앙의 힘 역시 크고 깊어야 그 열매가 크다는 것이다.

화두참구와 조바심은 '반비례'

'어서 빨리 공부가 되게 해야지, 누가 공부를 잘하게 해줄 선지식을 없나' 등의 '속효심(速



논강을 하고 있는 무어 스님.

효心)을 내면 뉘속공부는 더 더디게 된다. 조바심은 또렷 또렷하고 분명하게 있던 공부도 오히려 희미하게 만든다는 것.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화두가 분명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번뇌 망상만 일어나 신란해지기 십상이다.

무어 스님은 무엇보다도 화두공부 끝에 맞보는 고요하고 편안한 경계를 즐기는 것을 경계했다. 안주는 수행자의 목약이 된다는 의미다. 또 화두가 깊어져 느끼게 될 법열(法悅)도 수행자에게는 금기다. 그 이상의 정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으니 항상 마음자리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무어 스님은 일체의 사랑과 분별을 일으키는 알음알이를 철저히 배격할 것을 당부했다. 때문에 화두공부는 마음에 들러 붙은 알음알이를 끊어야 하며 내내 애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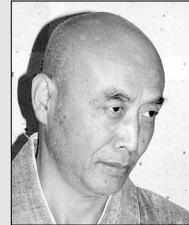


대구 동화사에서 '간화선의 수행방법'을 주제로 열린 7차 담선법회 논강 현장. 사진=배지선 기자

쿠바출신 세계적 무용가 육조사를 찾은 까닭은?

"선을 통해 '마음이 열린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입니다."

쿠바 출신의 세계적 창작무용가 로사리오 까르테나스(52·단사 폼비나포리아 단장) 제7회 서울세계무용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그가 10월 16일 서울 가회동 육조사로 현웅 스님을 찾아 선(禪)공부하는



현웅 스님



로사리오 까르테나스

시간을 가졌다. 그의 공연작품 '오우로보로스(Ouroboros)' 자신의 꼬리를 무는 뱀을 가리키는 표현)을 통해 '자신을 크게 한번 죽여라'는 선사상을 이미 재해석했던 까르테나스 단장은 "집착에 얽매어 늘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다"

며 그 이유를 스님에게 물었다. "고요해지려는 마음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집착하는 동안에도 나는 진리와 같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자기와 함께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비로소 집착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 발버둥을 치면 철수룩 거미줄에 더 걸리는 이치와 같죠."

1시간여 계속된 단담이 끝나자 까르테나스 단장은 "쿠바로 돌아가더라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수행하겠다"고 하자, 스님은 "순간순간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선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 노병철 기자

세상에 이런 일이...

천일선원에서는 놀랍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다가 곳이나 천도재등 좋다는 것은 다해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 효과를 못본 환자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보는 심정으로 양보살(원장님)을 만나 치료를 받고 나서 세상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양보살님을 만나면 병의원인, 병의상태, 전생업의 실마리를 풀어서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고 있다. 병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담을 해주고 있다.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Tel. 054)638-2224

개 천 지 조 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치실 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까.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악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천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아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

"천기도법" (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돌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1천년간 써지 않는 신비의 연방? 연자육

(조금만 드셔도 공복감이 없습니다) (껍질 벗긴 식용 연세약)

수행하시는 스님, 수행생에게 집중력 강화!!

수행하시는 스님, 수행생에게 집중력 강화
신장, 비노기, 집중력 향상 및 혈액순환을 도와 줍니다.
다이어트를 하시고자 하는 분에게도 좋습니다

- 취급식품
 - 연자육 속살
 - 유기농 쌀 (백련인방 / 연꽃씨인방)
 - 백련국수 / 백련칼국수
 - 백련차 / 백련인차

(주) 좋은씨앗 연자육은 바로 드실 수 있도록 껍질을 벗겨 연자육 속살만을 대량에 자연건조진공포장하였습니다.

전국지사문의: 030-534-4700 / 제품문의: 042-528-4415

성명서

무속인이 사암의 간판을 달고 불상을 모시고 당당을 하고 있다. 무속인은 신명과 영신이 있다. 사암에서는 스님들께서 수계하고 불상을 모시고 수행정진 하는 것이다. 무속인이 사암을 사칭하여 사원초파일에 등을 달고 하는 것은 불법이며 타법이다. 이점 인식하시고 무속인들께서 부처모신 불상을 치우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신교 측에서는 불교를 미신이라고 타파한다. 불상을 모시고 신명으로 굿을 하니 개신교 측에서 미신이라고 한다. 무속인은 본연의 행사를 하시고 부처님은 절에서 스님들께서 모셔야 한다.

불교발전연구협회 일동은 현재 미래의 문제점을 풀어야 한다.

대표
상산 해광 법광 해만 법상 해우 법행 우애
011-9836-9561(상산)